금남로에서

대통령 한 명이 일으키는 나비효과

장필수
논설실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딱 2주가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날부터 매일 민생 현장을 찾았고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국제 외교무대에 등장하는 기록을 세웠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내각 인선이 한창이고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도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로 곧 스타트 총성을 울릴 예정이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출범식을 갖고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

지난 2주간 진행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쯤 된 듯 하다.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 3년의 퇴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열망의 반영일 것이다. 국민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의 58.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임 1주 만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득표율보다 10%포인트 가량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만난 한 기업인은 이 대통령이 "일 잘하는 대통령의 롤모델을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유를 물었더니 진영 논리를 떠나 실용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기대가 된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실용정책이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곳은 주식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국내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대통령 취임 직후 줄곧 오르더니 어느덧 3000선을 육박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 열 명 중 여섯 명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지수가 5000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 국내 주식시장은 그동안 개인투자자(개미)에겐 불공정 경기장이란 오명을 들어왔다.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력이 떨어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투명하지 않은 공시 제도와 쥐꼬리 배당, 잘 된다 싶으면 기업을 분리해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등으로 개미들이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렇다보니 코로나19 시기 국내 시장을 살린 '동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으로 대거 이동해 '서학개미'가 됐고 젊은층은 코인거래소로 몰려갔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경험으로 누구보다도 주식시장을 잘 아는 이 대통령이 시장 투명성 강화로 최소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만이라도 없애겠다고 했으니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 인상적이다. 약간 오버해서 말하자면 갈수록 양극화 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에 소외감을 갖고 있는 지방 사람들에겐 희망의 메시지 같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못지않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겠느냐는 말에도 공감한다.

주식시장은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으로 움직이지만 수급의 영향도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니 코스피 5000시대가 꿈만은 아닐 것 같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첫 일성으로 민생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상장사가 배당한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뒤를 이을 전망이다.

내란 청산·검찰 개혁이 관건

새 정부 출범 초기 성과(?)와 기대감을 실물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사례로 이야기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지난해 초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우승으로 'V12'를 달성했다. 팬들은 1년 사이 감독 한 명이 바뀐 것뿐인데라며 놀라워했다. 감독이 형님 리더십으로 소통을 통해 팀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 올린 결과였다. 지도자 한 사람의 날개짓이 얼마나 큰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새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한 명만 바뀐 것뿐인데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에 최우선을 둔 실용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자신의 말처럼 전광석화 같은 정책 실행으로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진정한 성공은 5년이란 마라톤이 끝난후 제대로 평가받는다. '어쩌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당연히 해피엔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등 정권 초기 성패가 결정되는 과제부터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아픈 역사의 문학적 치유

김진구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장

전남 장흥은 여러 문인을 배출한 문향(文鄕)이다. 한 지역에서 한국 문학사에 빛나는 많은 문인들이 태어난 것은 드물다. 조선 중기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평가받는 '관서별곡'의 백광홍이 우뚝하다. 현대문학에 이르러선 더욱 두드러진다. 절절한 애환이 휘감는 '서편제'의 이청준, 동학농민혁명의 비극적 상황을 민중의 저항으로 펼쳐낸 '녹두장군'의 송기숙이 있다. 그리고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아 부녀 작가로 널리 알려진 한승원이 있다. 소설가 한승원은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한 직후 많은 인터뷰 기사가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영화로도 친숙한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 여러 작품을 썼다.

학부모-자녀 협치학교에서 장흥을 찾아갔다. 학부모 문학기행이다. 한승원 작품의 산실인 해산토굴과 '달 긷는 집'에서 노벨문학상의 근원을 긷고, '이청준 문학자리'와 천관문학관을 탐방한 문학 여정이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된다. 주중에는 학부모 중심으로, 주말에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행한다. 지난해에는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일정으로 조정래의 태백산맥문학관이 있는 소화다리와 현부자집의 벌교를 수차례 갔었다.

오는 20일에는 광주교육시민독서회의 문학기행도 시작한다. '문학과 역사가 만나는 곳, 광주의 기억을 걷다'가 주제이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동호가 걸었던 길 2.1㎞를 걷는다. 소설의 실제 배경지 도보걷기는 당시의 거리와 공간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다. 민주묘지기념관과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역사적 성찰과 문학적 감수성을 통해 그날의 아픔을 되새긴다. 광주 학부모, 시민으로 구성된 11개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참가한다.

우리 지역 작가들은 동학농민혁명, 5·18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 근현대사의 처절한 비극과 인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한승원과 한강 부녀 작가는 동학과 5·18과 4·3을 아우르고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한강)는 제목처럼 4·3사건의 비극이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이기에 치유와 화해가 더 필요하다는 시적 산문체의 작품이다. 동학농민혁명을 해안 지역 어민의 시각으로 확산시킨 '동학제'(한승원)와 탐관오리의 횡포와 외세의 개입을 단순한 고난과 봉기가 아니라 피지배 계층의 사회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 '녹두장군'(송기숙)은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횃불이다.

이처럼 호남과 제주도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세기를 걸쳐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탐관오리, 군부 독재, 이념 갈등의 국가폭력에 대해 농민이 봉기했고 시민이 맞섰으며 도민이 억압에 저항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폭도와 연좌제로 묶였다. 왜곡과 평가절하 속에서 제대로 된 명칭을 찾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농민, 시민, 지역민이 권력 집단에 맞서서 인권, 민주, 평화를 지켜낸 것으로 재평가되었다. 이번 유적지와 소설의 배경지, 작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 간에 더 많은 연계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광주 5·18민주화운동 및 제주 4·3 민주, 인권, 평화교육을 위해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빛탐인(빛고을-탐라)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전남·전북·제주도교육청의 연수원이 실시하는 '호남·제주권 역사교육 공동 직무연수'가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이 연수는 오월 광주, 전남 義, 전북 동학농민운동, 제주 4·3을 주제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수업 사례와 현장 유적지 답사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규모나 횟수, 교류 대상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학농민혁명과 5·18민주화운동과 4·3사건의 정신을 기리고 승계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학부모독서회까지 유적지 탐방, 소설 속의 현장 방문 등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름하여 '동오사(동학, 5·18, 4·3) 역사교류 프로젝트'라 가칭해 본다.

기 고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김명환
장흥문화원장
전 전라남도 교육위 부의장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할 정도로 '흙수저'도 아닌 무(無)수저였던 가정환경 때문에 소년공으로 생활하면서도 주경야독으로 대학에 진학한 후 변호사가 되었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었지만 대권가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온갖 사법적인 핍박을 견뎌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비견하는 언론의 '명비어천가'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모두에게 감동과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이란 큰 통합을 이루라고 국민이 임명해 준 자리이므로 역사에 길이 남을 '진짜 대한민국, 진짜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

3년 전인 2022년 5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거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소통과 협치, 화합 등 따뜻한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직 자유만을 35번이나 쏟아내는 취임사를 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보여야 할 역사적 관점이나 시대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K-컬처로 문화 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취임사치고는 취지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편향적이었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과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들의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취임사에 대통령 본인의 취향을 주로 반영한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이는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등용하였기에 가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박정희와 김대중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는 대통령보다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변 좋은 대통령보다도 일 잘하는 전문가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여 각 분야에서 이 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그들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선거 기간 누차 그렇게 하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임기 중에도 잊지 말고 역대 정권이 거둔 성과를 폄하 말고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먹사니즘'으로 요약되는 국민의 삶을 위해 35번의 자유 대신 12번의 자유, 12번의 소통과 협치, 11번의 화합을 외치고 실행했으면 한다.

5년 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날,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퇴임이 너무 아쉬운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대통령이 5월 11일 유세차 찾은 강진 다산초당에서 탄생한 '목민심서'의 경구를 옮겨본다.

"목민관은 엄하고 온화하며 간결하고 과묵하기를 마치 말을 못 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社說

대미 관세협상시 '농도 전남' 희생은 없어야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전남의 쌀 농가와 한우 농가가 긴장하고 있다. 관세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유무역을 포기한 미국이 상대국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전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조만간 한·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쌀과 한우 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열린 한미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명시된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수입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전면 금지돼 있고 미국산 쌀도 5%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32%만 수입되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가 현실이 될 경우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은 국내 쌀 생산량의 19.8%로 전국 1위, 한우 사육 규모는 2위로 주력 품목인데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

전남 농민들이 한미 관세협상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 우리 정부가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탓에 '농도 전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악몽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 정부는 수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산업 전반의 이해득실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게 무작정 쌀과 소고기 수입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다만 쌀을 주권으로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을 최대한 헤아리고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한우 농가를 위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익 보는 곳에서 얻은 것을 손해 보는 곳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일하는 청년보다 노년층이 많은 광주·전남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 노년층 비율이 청년층을 넘어서는 '실버크로스' 현상이 광주·전남에서 유독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의 이탈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최근 광주시 인구 140만명이 붕괴됐다는 소식에 이은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세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치는 15~29세(청년층)가 47.8%로 46.4%인 60세 이상(노년층)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반면 전남은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9.0%인데 반해 청년층은 44.2%에 그쳐 차이가 14.8%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광주도 노년층(46.5%)이 청년층(40.1%)보다 6.4%나 높아 특광역시 가운데 격차가 가장 컸다.

전국적으로는 일하는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많은데 광주·전남은 일하는 노년층이 훨씬 많으니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의 이런 현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수도권 등지로 떠나는 것과 연결돼 있다. 고령화가 심한 전남은 그렇다치더라도 광주는 2021년 2분기 이후 일하는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많다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광주는 2020년 3137명이던 20~30대 순유출 인구가 지난해 5860명으로 5년 사이 87%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순유출 인구 7962명 가운데 20~30대가 73.6%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 이탈이 심각하다.

청년들의 '탈 광주'를 막을 방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광주시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역량을 한 데 모으는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과 미래 차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 속도를 높이고 창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無等鼓

실천하는 리더십

"TV 뉴스 보는 재미가 난다", "어찌나 시원한지 사이다 마시는 기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행보에 대한 지인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누가 봐도 시원한 정책을 제시하고 답답하게 막혀있던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된 데 대한 감격이다.

단연 손꼽히는 결과물은 대남방송의 중단이다. 북한과 접경 지역인 강화군 주민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제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에 들리는 귀신 울음소리, 음산한 바람소리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했다.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해 주는 이는 없었고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다. 그러던 것이 단 며칠만에 뒤바꼈다.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대북방송 송출 중단을 지시하자 다음날부터 주민들을 괴롭혔던 북한의 대남방송도 중단됐다. 주민들은 1년여 만에 꿀잠을 잘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하나가 가져다 준 변화는 오랜 시간 풀지못했던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되었다.

이번에는 장마철마다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장마철을 앞둔 지난 12일 첫 공식 민생행보로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상습 침수 구역을 살펴보며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장마는 기후이기 때문에 예측 못할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측 가능한 사고는 무관심이나 방치로 일어난다. 방치로 인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 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면 징계를 내리겠다." 이날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사후 대책이 아닌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였다.

늦은 밤 꿀잠을 되찾고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일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원인을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망설임 없이 취하는 '실천' 덕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응원한다.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